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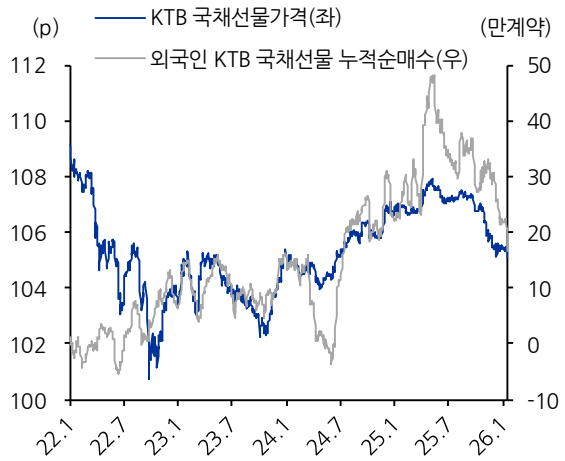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RA 이준영_ 02)368-6136_ lee.jy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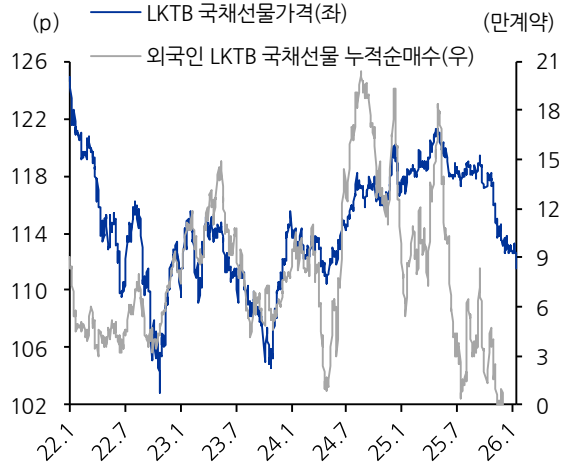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1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090%	9.4	18.8	13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493%	7.5	15.2	10.8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0.3	42.2	43.9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09	-25.0	-37.0	-35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1.59	-76.0	-161.0	-133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66%	5.4	7.7	9.4
	미국채 10년물	4.172%	3.9	0.4	0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60.6	62.1	67.9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816%	-0.6	-0.9	-3.9
	호주국채 10년물	4.668%	-3.2	1.8	-8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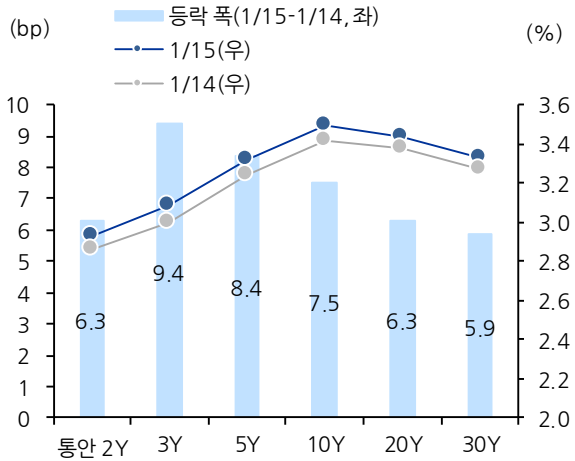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, 전구간 급등 마감. 금통위 영향.
-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인하 기조 문구 삭제, 만장일치 결정, 포워드 가이던드 축소 등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공개되면서 금리 전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.
- 기자회견 중 환율에 대한 우려 강하게 드러내는 등 사실 상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을 시사. 이에 시장은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경제지표 호조 영향.
- 영국 지표 호조에 영국 2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금리도 개장 초 상승 출발. 영국 11월 GDP는 전월대비 0.3% 성장하며 전월 및 예상치를 상회.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이전주에 비해 감소하며 예상을 하회한 것도 금리 상승 견인.
-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급등하며 금리 상승 자극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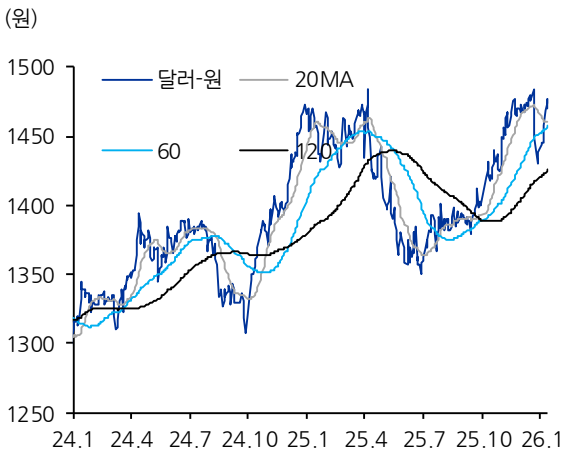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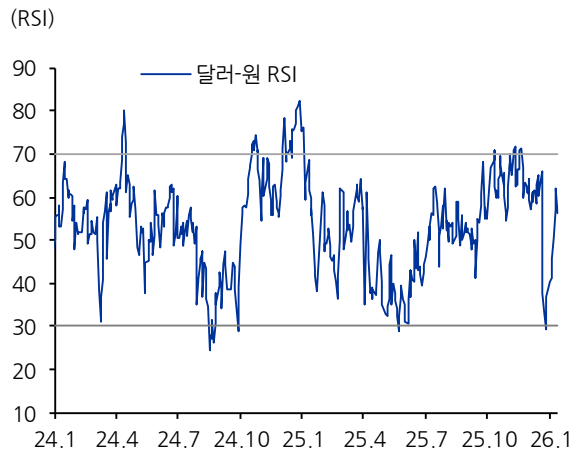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15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69.70	-0.5%	1.3%	2.1%
	달러지수	99.39	0.3%	0.5%	1.1%
	달러/유로	1.160	-0.3%	-0.4%	-1.2%
	위안/달러(역외)	6.96	-0.1%	-0.3%	-0.3%
	엔/달러	158.64	0.0%	1.1%	1.3%
	달러/파운드	1.338	-0.4%	-0.5%	-0.7%
	헤알/달러	5.37	-0.4%	-0.3%	-2.7%
상품	WTI 근월물($)	59.19	-4.6%	2.5%	3.1%
	금 현물($)	4,605.59	-0.6%	2.9%	6.6%
	비트코인($)	95,355.00	-2.7%	4.7%	8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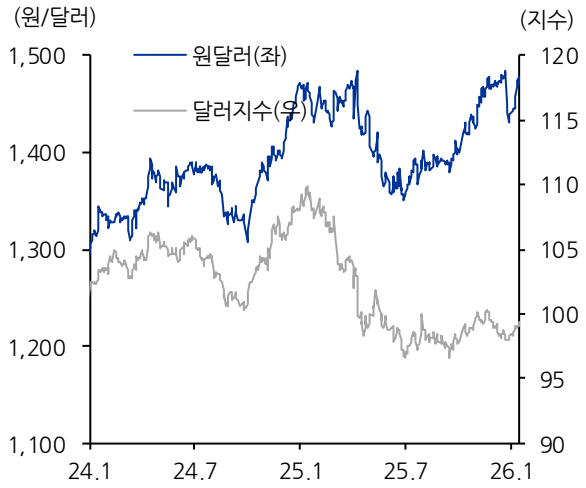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7.80원 상승한 1,469.7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469.20원 마감.
- 달러-원은 전일 야간장에서 급락 여파로 1,465원에 출발했으나, 1,473원대까지 반등.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,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마감.
-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.5%로 동결한 가운데, 이창용 총재가 환율을 동결 배경으로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경계가 환율 하방 재료로 작용.
- 그러나 미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에도, 장중 결제 수요와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으로 하락 폭은 크지 않았음. 당국의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발언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도 추가 낙폭을 제한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상승.
-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.8만 건으로 예상(21.5만 건)을 크게 밑돌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. 달러 인덱스는 장중 99.49까지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.
- 엔화는 여전히 일본 조기 총선에 따른 재정 우려로 약세를 보였음. 달러-엔은 158~159엔를 유지함. 반면 유로화는 독일 GDP (+)전환에도 수출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1.16달러 초반까지 하락.
- 미국 증시는 TSMC 사상 최대 실적과 공격적인 투자 계획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나, 오후 들어 상승 폭을 축소함. 국제유가는 이란발 지정학적 우려 완화로 WTI -4.6% 급락.